

광주 투기과열지구 해제 한달 주택시장 약발 안먹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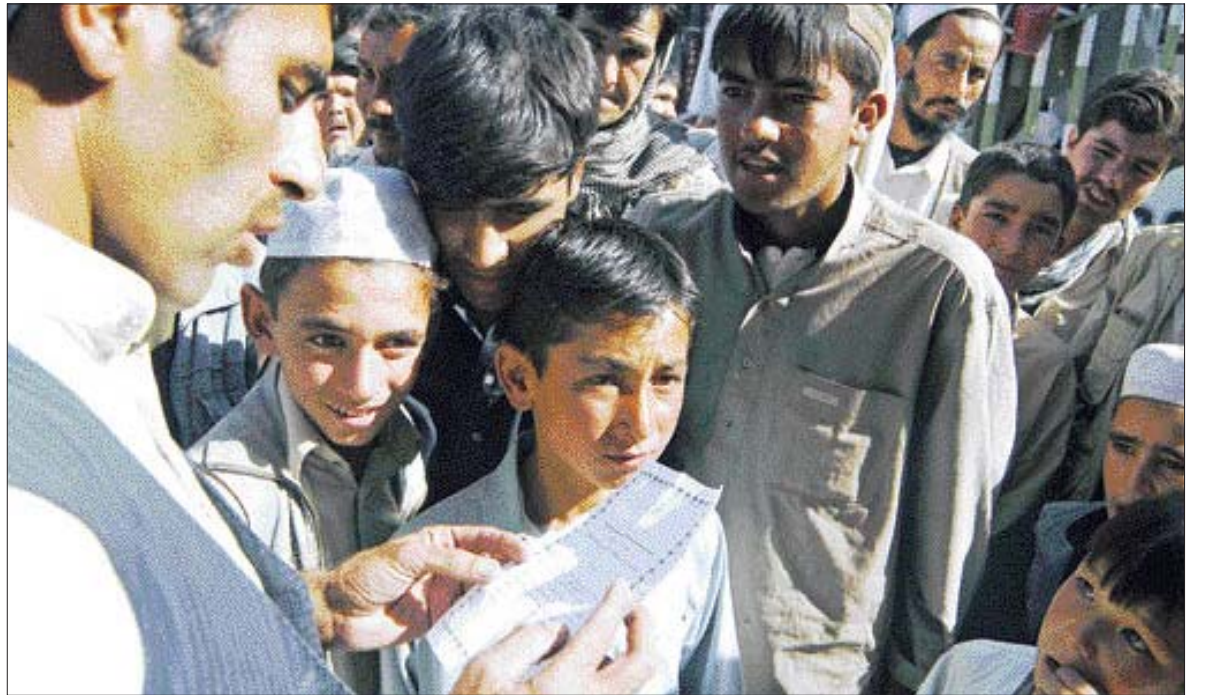
미분양 사상 첫 1만세대 넘어서...시세도 하락 대출 완화·투기지역 해제 등 추가 대책 절실

광주와 대구 등 일부 지방 대도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 한 달째로 접어들었지만 해당 지역 내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가 하면 집값은 되레 떨어지는 등 지방 주택시장에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산업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건설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남구의 투기과열지구와 광산구의 주택투기지역 해제를 비롯해 수요자들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등 추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일 광주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광주의 미분양 아파트는 총 1만289세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역 내 공식 미분양 물량이 사상 처음으로 1만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지방 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이 알려진 이후로도 광주의 미분양은 한 달새 360세대나 늘어났다. 광주는 또 국민은행 조사 결과 올해 집값이 뚜렷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달간 북구와 광산구의 아파트값이 각각 0.01% 떨어지는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후로도

집값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구의 경우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달성구와 달성군의 아파트값이 한 달새 각각 0.43%, 0.34% 떨어지면서 전반적인 집값이 0.25%나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당초 건설업계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전반적인 주택시장이 다소나마 활기를 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해제 조치 이후로도 주택시장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남구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데다 광산구도 지난 2005년 6월 이후 2년이 넘도록 주택투기지역에 묶여 있는 등 5개 자치구가운데 2곳이 규제를 받고 있어 시

장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주택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주택 대출규제 및 세금 완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분양권 전매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단기적 '처방'인 만큼 광산구 등 투기지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광주 등 지방 주택시장은 장기간 활력을 잃었다는 점에서 일부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방침은 '반쪽'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투기지역 해제와 함께 대출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아프가니스탄 주민이 1일 가즈니시티에서 군 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살포한 '군사작전 예고' 전단을 읽고 있다. 아프간군은 이 전단에서 군사작전이 임박했음을 알리면서 주민들에게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권고했다. /AFP=연합뉴스

“군사작전땀 모두 살해”

탈레반 “시한 지났지만 인질 석방 협상 지속”

정부 “아프간군 작전개시실 사실무근”

탈레반 무장 세력이 최종 시한이라고 제시한 1일 오후 4시30분이 지나도록 협상에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군이 이날 군사작전을 예고하는 전단을 살포하는가 하면 탈레반은 구출 작전이 이뤄질 경우 인질을 모두 살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날 밤 8시40분을 전후해 로이터통신·독일 dpa·교도통신·AIP 등 주요 외신들이 탈레반 무장세력에 억류된 한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

한 군사작전이 개시됐다고 보도했으나 사실무근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와 인질 가족들이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날 오후 AP 등 외신은 아프간군이 헬기들을 동원해 한국인들이 납치, 억류돼 있는 가즈니주 일원에서 주민들에게 군사 작전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는 전단을 뿌렸다고 보도했다. 아프간군은 전단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서 군사작전에 돌입하려 한다”면서 “주민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

정부가 통제하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탈레반 대변인을 자처하는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이날 “구출작전을 개시하면 인질을 모두 죽일 것”이라며 “인질을 죽인 뒤 우리는 충분히 탈출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그는 또 “시한이 지났지만 우리는 교섭을 선호한다”며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마디 대변인은 이어 연합뉴스와 간접 통화에서 “한국인 여성 인질 2명의 건강 상태가 매우 위중해 적절한 처방을 하지 않으면 병사할 수도 있다”고 밝혀 인질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주요 외신들이 아프간군의 군사작전설을 앞다퉛 보도했으나 결국 오보로 판명되면서 인질 가족들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 정부는 추가 희생을 막기 위해 무장세력 측과 직접 교신하는 한편 피랍자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교력을 총동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100명 중 1.5명은 외국인

국내 합법 거주자 72만명 1년새 35% 늘어...다문화사회 가속

광주·전남 2만7,096명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72만명을 넘어서 전체 인구의 1.5%를 접하는 등 한국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의 외국인 주민은 2만7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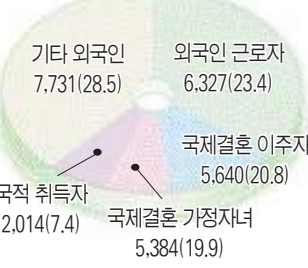
여명, 국제결혼거정 자녀수는 5천300여명으로 집계됐으며, 나주시와 광주 북구는 외국인 증가율면에서 전국 자치단체 중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1일 행정자치부가 밝힌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외국인 주민은 72만2천686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1.5%를 차지했

다. 이는 지난해 53만6천627명보다 35%나 증가한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광주시가 1만784명, 전남도는 1만6천312명 등 모두 2만7천96명으로 전체 인구의 0.8%, 국내 전체 외국인 주민의 3.7%를 차지했다. 국제결혼거정 자녀는 광주 1천231명, 전남 4천153명 등 모두 5천384명으로 전국의 12.2%에 달했다.

특히 나주시는 지난해 대비 외국인 주민 증가율이 144%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3위, 광주 북구는 82%로 9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외국인 주민이 급증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 등에 따라 국제결혼 이주자가 크게 늘었고,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도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52.4%가

■ 광주·전남 거주 외국인 구성 (단위:명, %)



장 많고, 동남아 23.7%, 미국 3.4%, 일본 3.3%, 대만 2.9% 등 순으로 일부 국가의 편중 현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4만4천258명의 연령을 조사한 결과, 6세 이하는 59.8%, 6~12세는 32.5%로 나타나 취학 전 아동의 한국어 활용능력 향상과 학습지도, 차별·소외감 해소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민간기업은 광주에 10개, 전남에는 14개가 있지만 80%가 민간기업으로 예산과 전문성이 부족해 국가와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후식기자 who@

CATS 캣츠 타겟 발매중!! 2007. 8. 7-18 / 광주광역시 중구 문익환광장 1층 문의: (062)221-0341, 1533-0765

유망직업 '장학 57년 역사인' 남부대학교 http://www.nabun.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ac.kr

큰생각, 큰행동, 큰꿈이 있는기업

장강, 진보, 세계를 향해 달려가라!

| 구분 | 기업명 | 주요사업 | 비고 |
|----|---------|-------------|-----------|
| 1 | 삼성전자 | 반도체, 가전, IT | 세계 1위 기업 |
| 2 | SK하이닉스 | 반도체 | 세계 2위 기업 |
| 3 | LG전자 | 가전, IT, 화학 | 세계 3위 기업 |
| 4 | 현대자동차 | 자동차 | 세계 4위 기업 |
| 5 | 기아자동차 | 자동차 | 세계 5위 기업 |
| 6 | 삼성물산 | 물산, 건설, 서비스 | 세계 6위 기업 |
| 7 | SK이노베이션 | 화학, 에너지 | 세계 7위 기업 |
| 8 | 삼성생명 | 금융, 보험 | 세계 8위 기업 |
| 9 | 삼성증권 | 금융, 증권 | 세계 9위 기업 |
| 10 | 삼성카드 | 금융, 카드 | 세계 10위 기업 |

삼성그룹은 2007년 7월 말 기준 총 자산 1,000조 원에 달하며, 매출액 1,5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2007년 7월 말 기준 총 자산 1,000조 원에 달하며, 매출액 1,50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